

3월의 기도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느도다 (셀라)
<시편 3편 3-4절>



- 1. 한해 동안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5. 우리의 모든 계획과 뜻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DCEM 성회안내

2015년 4월 9일과 10일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조용기 목사 초청 '말레이시아 성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2015년 4월 27일과 28일에 대만 타이팅에서 조용기 목사 초청 '대만 동부 특별 부흥성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양호, 김정환, 나인규, 박예림, 박우택(원로장로), 안희순, 오현주, 원소선, 이준호, 이형춘, 장경자, 순복음정릉교회 조종숙 목사님, 010-2726-\*\*\*\*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자화상과 자존심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의 맥킨지는 오늘날 경제 상황을 가리켜 그 핵심은 '인재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드 마이클스 등이 쓴 「인재 전쟁」이라는 책에서도 성공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전략, 기술, 시스템 보다 더 선결되어야 할 것은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 전자의 이견희 회장도 '인재 경영'을 제창 강조했습니다. 빌 게이츠 회장이 이끄는 마이크로소프트사(MS)는 1년에 20만여 통이나 되는 이력서를 받고 그 중 선발해 20%에서 30%만 채용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300명으로 구성된 사내 인재 발굴 팀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발로 뛰어나다니 인재들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사람을 잘 쓰면 그 사람이 사회와 회사와 국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의 기업들은 지금 '인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시대마다 인재를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세상이 다 버린 인재를 하나님이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저 왕궁에서 택한 것이 아니라 쓰레기더미에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멸시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당의 보화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은 뛰어난으로 인재를 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인재를 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자화상을 항상 간직하면 모든 절망과 낙심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우리의 자화상이 구겨지지 않고 자존심이 짓밟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는 자화상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당당하고 용감하게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동북아 복음화의 허브, 순복음동경교회

3월 3일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축복대성회 개최
NGO 굿피플, 센다이교회에 성금 전달



3월 3일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축복대성회가 일본 순복음동경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른 아침부터 순복음동경교회는 찬양과 기도로 성회를 준비했다. 조용기 목사의 일천만구령 선언이후 일본복음화의 전초지가 된 순복음동경교회는 이국땅에서 사는 한인들에게는 치료와 회복 그리고 희망을, 일본인들에게는 꿈과 구원의 소원을 심어주고 있다.

이날 대성전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부족해 계단에 앉아야 할 정도로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성도들이 참석했다. 조용기 목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비결'(창 12:1~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등단하자 성회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환영했고, 화동이 환영의 꽃다발을 조용기 목사에게 전달했다.

조용기 목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고민은 하나님이 계시는 줄은 아는데 어디를 가야 만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를 알려만 준다면 우리는 거기로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 가운데 만날 수 있다. 생각이 바로 대합실"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꿈과 믿음 그리고 입술의 고백이라는 대합실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를 통해 마음을 점검해,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합실에서 만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용기 목사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각과 꿈을 갖고, 믿음으로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을 하므로 하나님이 계시 수 있는 마음의 대합실, 처소를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생활 속에서 늘 함께 계셨다"라며 "지난 목회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점검한 후 생각·꿈·믿음·말의 대합실에서 주님을 만나 놀라

운 기적이 일어나고 한국최대교회, 세계최대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설교 후 조용기 목사는 병자들을 위해 신유기도하고 참석한 성도들과 함께 성령 충만과 일본일천만구령 등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

한편 동경성회에는 성금전달식도 진행됐다.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는 "순복음동경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굿피플선교회(회장 이혜경 권사)를 창립했다. 그 첫 사랑의 실천으로 굿피플선교회가 동일본대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을 모금했다"고 소개했다. 조용기 목사가 모인 성금을 신용국 목사(순복음센다이교회 담임)에게 전달하고 격려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성도는 물론 일본인, 인근 중국인들도 참석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한 이번 성회를 통해 순복음동경교회는 동북아복음화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나는 나의 자화상을 본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6~17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자화상이란 스스로 그린 자기의 초상화를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고 질병과 고통이 고침을 받고, 축복과 행통으로 부활하고, 천국의 백성이 된 나의 자화상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 1. 옛 사람과 그의 자화상

오늘날 깨어진 가정이 급격히 늘어가고 그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화상을 가지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그의 자화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자화상을 마음속에 가지고 그것을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의 노예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죄책과 정의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병약하고 고통스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고, 가난하고 저주받은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마음속에 부정적인 자화상으로 생겨나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시덩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되는 자화상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

은 사망으로 사망의 음부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 2. 잘못된 바라봄의 법칙

자화상이 잘못되면 그 자화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생애가 잘못되게 됩니다. 부정적인 자화상을 항상 바라보고 불안과 낙심과 좌절하고 탄식과 슬픈 말을 하면 그 모습이 생활에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가 “나는 못살겠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패배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을 다 듣고 있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마”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 드린 것처럼 말에는 굉장한 에너지가 있고, 말을 입 밖으로 내놓으면 그 말이 에너지를 생산해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늘 “성령이 역사해서 교회가 잘된다”라고 모이면 칭찬하고, “목사님 설교도 너무 좋다”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부정적인 것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리고 창조적인 말을 하면 그 배후에 계시는 주님께서 꼭 역사하시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 뒤에 있는 마귀가 웃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 3.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회개와 구원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7~18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른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늘 운행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성령이 곧 역사하십니다. 입의 말로 묶이고 입의 말로 사로잡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입술의 말을 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던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순식간에 빛이 만들어졌듯이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성령이 와서 운행하십니다. 입술의 고백은 것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청산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냥 신앙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변화가 다가오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변화가 다가오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부정적인 자화상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자화상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용서와 의, 거룩함과 성결, 치료와 건강,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 영생복락의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보고, 믿고,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 제13회 아시아목회자 초청세미나 ‘희망 목회’ 주제로 9개국 400명 중화권 목회자 참석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성령 충만’ 당부



대만을 비롯해 중국 홍콩 등에서 사역하는 중화권 목회자 400명이 56년간 한국은 물론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희망 목회’를 배우기 위해 3월 4일부터 8일까지 한국을 찾았다. 오산리 영산수련원에서 열린 제13회 아시아목회자 초청 세미나는 모두 9개국에서 중화권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제13회 아시아목회자 초청세미나는 우리 교회와 (사)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 동북아선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대만 ‘조용기 목사 학교’가 협력했다.

3월 4일 오전 영산수련원을 방문한 조용기 목사는 희망목회 비결이 ‘성령충만’에 있음을 강조했다. 조용기 목사는 “주의 사역을 하는데 있어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없다면 사역할 수 없다”며 “성령은 역사하는 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주인으로 계실 것”



이라고 강조했다. 조용기 목사는 “그러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 꿈 믿음 말로 통해 다가와 천국을 알려 주신다”며 “4차원의 영성인 생각 꿈 믿음 말이 성령을 만나는 대합실임을 깨닫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기독교가 세계 복음화를 이끌기 원한다면 4차원의 영성을 갖고 성령과 동행해야 한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사용되는 분량의 그릇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강의 후 참석자들은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뜨겁게 기도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 꿈 믿음 말로 통해 4차원의 영인 성령과 동행하는’

목회를 실천하겠다는 간절한 기도였다.

동북아선교회장 최병구 장로는 참석자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희망목회를 배웠으니 성도들에게 천국을 알리는데 힘써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제13회 아시아목회자 초청 세미나는 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수료식을 갖고, 참석자들이 8일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동참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또한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오산리최자실기념공식기도원에서 열릴 예정인 제27회 아세아성도방한대성회에 각 교회 성도들과 함께 동행할 것을 약속했다.

## 부산 성령축제, 영남지역 영적 목마름 해결

### 제4회 기하성 영남지역연합회 교역자 및 사모 수련회 개최, 조용기목사 등 강사 초청, 순복음금정교회서 진행



영남지역연합회 교역자 및 사모수련회와 성령축제가 3월 16, 17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하 기하성) 영남지역연합회 주최로 순복음금정교회와 글로리콘도에서 진행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영남지역연합회 수련회는 기하성 영남지역에 속한 경남지방회와 대구경북지방회, 대구지방회, 영남동지방회, 부산지방회 소속 목회자들이 연합체로 이를 통해 영남 복음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 또한 수련회는 친교의 장은 물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함과 동시에 새로운 꿈

과 비전 그리고 도전을 심어주고 있다.

3월 17일 조용기 목사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강조하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다가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 허물을 씻음받고 거룩하게 된다. 채찍을 맞은 공로로 병고침을 받는다.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 죽음에서 부활하고 영생천국을 얻게 된다”고 역설했다. 조용기 목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 주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3월 18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 기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열린 조찬기도회에서 조용기 목사는 “나는 부산사람이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부산 같은 신앙의 토양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비하신 은총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목회와 세

계선교의 경험을 간증했다. 또한 조용기 목사는 “더 이상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를 모토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나간다면 한국과 세계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축복했다.

수련회와 더불어 순복음금정교회에서 진행된 성령축제는 교역자와 사모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참석해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고 부산을 포함한 영남지역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품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인건 목사가 축사했다. 이 목사는 “오래 전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성장세미나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강의 중에 ‘교회 밖에 불신자가 있는 한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에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었다. 오늘 이 시간이 기도와 전도의 불을 지피는 견인차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며 감사를 전했다.